



박행보 허임석 오견규 박종석 박태후

수묵 저장들의 불꽃 튀는 붓끝 춤사위

은암미술관 7일~4월 3일 '수묵의 춤사위'전

서예가·시인·사진작가·배첩장 참여
역동적인 수묵화 제작 과정 퍼포먼스

7일 박종석, 8일 전명옥·허임석, 9일 오견규
10일 박행보·손광은, 11일 박태후 작가 시연



오는 8일 은암미술관에서 작품 시연을 할 예정인 담현 전명옥 서예작가. 사진은 지난해 작품 제작 모습.

작품에 대한 고민, 띠고 눈물이 서려있는 예술가의 작업실은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때면 완성품만 보는 관람객들은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예술가 중에서도 수묵화가들의 작품 제작모습은 더더욱 보기 어렵다. 수십년간 쌓인 내공을 짧은 시간에 표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7일부터 4월3일까지 '수묵의 춤사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수묵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전시다. 수묵화 이미지는 조용하고 사색적이다. 한국화 단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현대에는 서양화에 자리를 뺏기며 고루한 옛 그림이라고 폄하를 받기도 한다. 실제 미술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사)한국미술시가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품 경매에서 한국화 6대가(의재 허백련, 이당 김은호, 심산 노수현, 심향 박승무, 소정 변관식, 정전 이상범) 작품 판매가 비중은 0.65%에 그쳤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봐왔던 수묵화 이미지가 아닌 역동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서예가, 시인, 사진작가, 영상작가, 배첩장(서화를 액자·병풍 등으로

만드는 가능보유자) 등이 참여해 융복합 예술을 보여준다. 전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일(오후 3~5시)까지는 작가 시연, 1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결과물과 함께 작업모습 사진·영상 등을 전시한다. 7일 석주 박종석 작가는 가로 3m·세로 2m 전지에 대형 붓을 이용한 작품을 관객들 앞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8일에는 담현 전명옥·남리 허임석, 9일에는 목은 오견규 작가가 대화 등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10일에는 금봉 박행보 선생이 나선다. 남도 문인화 맥을 잇고 있는 박행보 선생은 친구 손광은 시인, 제자 등과 함께 시화를 제작한다. 11일에는 시인 박태후 문인화가가 참여하는 등 서예, 문인화 등을 선보인다. 이번 시연 행사를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가들의 마음가짐, 표정, 손 움직임 등을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다. 주제 '수묵의 춤사위'는 화선지 위에서

붓을 휘두르는 작가 모습을 표현했다. 12일부터는 안남천 배첩장이 관람객들 앞에서 완성품을 전통기법으로 배첩하고 수묵화 작품 보존에 관해 토론 시간을 갖는다. 작품을 액자에 끼워넣는 일을 사람들이 흔히 표구라고 부르지만 이는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다. 또 요즘은 표구과정에서 풀에 방부제와 본드 등을 섞기 때문에 작품이 오래 보존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안 배첩장은 본인이 직접 밀가루 등으로 만든 접착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리얼전 사진작가는 시연 모습 촬영을 맡았다. 채종기 관장은 "이번 전시는 작품 결과물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묵이 가진 역동성을 통해 윤희의 묘미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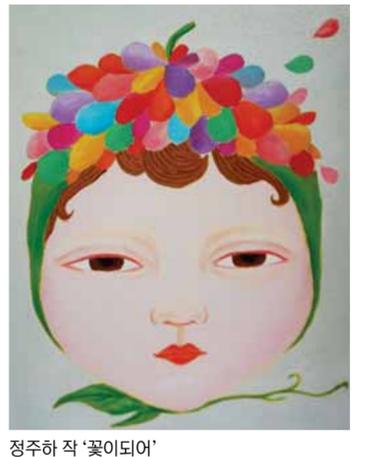
쑥대머리·흥보가 열창에 관객들 추임새 절로 전통문화관 서석당 '유리피언 K-퓨류 한국소리전'

지난 5일 봄비가 내리는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서석당.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푸른 눈의 외국인 소리꾼들도 모두 즐겁고 놀란 무대였다. 출연자들은 그 어디서도 경험한 적 없는 추임새와 호응에 절로 흥이 났다. '쑥대머리'를 따라 부르고, 판소리 대목 대목 마다 "일씨구", "잘한다"로 장단을 맞추는 관객들이 그들에게는 신세계였다. 관객들은 한국 사람 못지 않은 그들의 판소리 실력에 환호를 보냈다. <사진> 전통문화관 특별기획공연 '유리피언 K-퓨류 한국소리전'은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제3회 K-vox 유리피언 아마추어 소리꾼경연대회' 수상자들과 한국의 소울소리관, 락음악단원이 함께한 무대였다. 공연은 안나엣츠, 빅트린, 바질, 에티엔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빅트린 블라보씨가 부른 '춘향가' 중 '쑥대머리'는 정확한 발음과 음정도 일품이었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깊은 목소리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건 대상 수상자인 안나엣츠가 부른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이었다.

"여보 마누라" "박을 한번 타 보는다" 등 능청스러운 발림과 시원스레 소리를 뿜아내자 '앙코르'가 쏟아졌다. 에르베 페조디에는 아니리광대로 등장, 수궁가 중 '토끼화상', 흥보가 중 '화초장'의 아니리를 프랑스어로 선보이고 민혜성씨가 소리를 선보인 한·불 판소리로 눈길을 끌었다. 영국 SOSA 대학 음악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으로 한국 판소리와 관련해 60여명이 넘는 소리꾼들을 인터뷰했던 안나엣츠씨는 "첫 무대인 '비나리'를 선보였을 때 관객들의 추임새를 듣고 '역시 광주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와서 10일간 산공부를 하면서 목이 쉽게 자랑스러웠으며 웃는 빅트린씨는 "'쑥대머리'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걸 보고 더 깊은 울림을 쏟아내고자 혼신을 다했다"며 "전통문화관에서의 공연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처음 배운 판소리가 '흥보가'였다. 기회가 된다면 광주에서 '흥보가' 완장을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한옥 공연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대인시장 한평 갤러리 30일까지 '초록지문'展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사업단이 30일까지 한평 갤러리에서 '초록지문'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수옥 작가는 클로버를 소재삼아 '행복의 봄'을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손에 닿지 않은 행운(네잎 클로버)을 잡기 위해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세잎 클로버)을 짓밟는 경우가 있다. 작가는 세잎 클로버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김은표에게 봄 이미지는 슬프면서도 찬란하다. 작품 '모란모란'은 피고지는 모란을 통해 봄을 꿈꾸는 다짐을 전한다. 박주영은 꽃으로 '육망의 봄'을 드러낸다. 꽃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육망과 생명력의 근원으로 작품 '차가운 육망'은 만개한 꽃을 냉각시킨 뒤 박제화시켰다. 정주하는 머리카락을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주하 작 '꽃이되어'

“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순천점 | 중앙시장 앞 061-752-9940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